

대한 양계협회 소식

감별사 3명 스위스로 파견

대한양계협회는 조승제, 박해창, 탁경필 등 3명을 협회 스위스지부(지부장: 윤중덕)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월 18일 스위스로 파견하였다. 올들어 해외 파견 감별사 시험에 합격한 감별사는 10여명인데 출국한 3명 이외에도 김석연등 4명이 수속중이며 이들도 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곧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해파실기시험 합격자 8명에 대한 2차시험(필기시험: 양계학, 영어)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전원 합격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2차시험 합격자는 홍일유, 최정균, 윤공덕, 허만재, 정원준, 최경삼, 김희준, 오순일씨 등이다.

양계협회, 세광양행 기념식수



대한양계협회와 세광양행 직원 일동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 경기도 김포군 불로리에 소재한

김포 능력 검정소에서

대한양계협회 탐 경제능력 검정소에서 기념식수를 했는데 직원전원이 오동나무 2년생 100주와 다수의 꽃씨를 수집파종했다. 한편 작년도 식목일에는 수양버들 등 다수 樹種을 植木했는데 100%가 생존하여 직원일동을 흐뭇하게 했다.

양계협회 전북지부 이전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석삼)가 지난 4월 15일 전주시 서노송동 648~19번 한병원 3층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전주 ②-2661 야간 ②-5729

세이버종계(P.S)

국내최초로 수출

그간 국내양계업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이버 스타크로스 288과 스타브로의 양태 품종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하게 되었다. 국내 세이버 G.P.S 농장을 운영해온 한국 카아길주식회사(대표: 박승만; 서울 용산구 한강로 2 가 101)는 그동안의 국내외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신용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문을 받고 지난 4월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김포공항발 방콕을 경유 차카르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번 수출된 세이버종계의 수량은 스타크로스 288가 28Units (♀2,800수, ♂336수), 스타브로 22Units (♀2,800, 수 ♂495수)로 총 5,831수를 처녀출전한바 있는 데 앞으로도 세이버종계가 해외에 수출되도록 더욱 품질관리에 노력하리라 한다.

월례강습회 개최

4월 30일 여성회관에서.

양계협회는 지난 4월 30일 여성회관 강당에서 5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사에는 유윤수사료협회장(최근의 소백피파동과 사료동향)과 이궁수농협 축산과장(양계산물유통과정과 문제점)이 수고하였다.

이사회 개최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회의실에서 '7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73년도 결산, 양협협회와의 통합문제, 축산진흥회 입회, 신가입회원 증인" 등을 토의하고 최근의 사료동향에 대하여 대책을 숙의하였다.

KIST후원 석유화학(KISTEIN) 사료 시험종료



연구소에서 개발한 석유화학화학(KISTEIN)을 부로일러 사료에 있어서 대두박과 대치사양시험을 김포소재 검정소에서 실시하였는데 자세한 시험결과는 이번호 57P에 발표하였다.

농수산부 소식

올해 65억 3천만원 약축농가에 지원 년리 9%, 소 5만두 기르도록

농수산부는 올해에 총 65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5만 9천 6백 마리의 소를 사서 기르도록 할 계획이다. 農水產部가 마련한 올해 牛頭 育成計劃에 의하면 1 농가 1 마리 원칙아래 ① 총아지를 낳아 기르기 위해 암소를 사는데 한마리에 8만원씩 4만 9천 7백 70마리 분을 年利 9%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응자하며 ③ 젖소는 구입자금의 70%씩 1천 7백 마리 분을 融資하기로 돼 있다.

축산물값 보상시책 추진

농수산부는 畜產物의 低價格시책에 따른 畜產業의 위축을 막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肉類값을 연간 최저 3%에서 최고 10%까지 인상하는 畜產物價格 보장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식용 육우 65두도입

번식용 肉牛 65두가 지난 4월 4일 한국에 도착했다. 암송아지 62두, 솟송아지 3두 등 65마리의 이 소는 미국의 헥터 프로젝트 기구가 기증하고 A.I.D가 수송비를 부담했는데 忠北 과산의 사육장과 부산의 家畜開發委등 全國 농가에 분양하게 된다.

사료작물 해외계약 재배추진

경남기업등 업체선정

농수산부는 옥수수등 사료작물을 해외에서 계약재배할 기업으로 경남기업등 4개사를 선정,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3일 확정된 이 계획에 의하면 共榮企業과 京南企業은 월남에서, 味元은 인도네시아에서, 南光土建은 필립핀에서 옥수수를 합작투자조건으로 재배하게 됐다. 이들은 우선 1차로 1백정보 규모로 사업에 착수하고 국내 영농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옥수수 이외의 사탕수수 바나나도 재배하기로 했다 한다.

대단위 목장 30개 조성키로

지난 4월 2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오는 1981년까지 民間資本 3백 85억원을誘致하여 2千町步규모의 대단위 牧場 3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다.

농수산도매시장 축산부개장

—서울시—

서울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고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를 개장키로 했다. 이번 개장되는 축산부도매시장은 지난 2월 6일자로 공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에 의한 것인데 本場은 성동구 마장동 牛市場에 두어 성풍산업이 대행 관리토록 했으며 分場은 영동 포구 독산동 산 129에 두어 협진 식품주식회사가 대행토록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가 개장되면 농가나 비 육우단지의 축산업자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도매시장에 소나 돼지를 판매위탁하게 되고 식육상들은 축산부 도매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소나 돼지를 사들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게 되었다.

이번 축산부가 개장되면 서울시는 시 감독관을 도매시장에 상주시켜 수급과정 등을 감독하게 되고 관허식품 판매업소가 법을 어겨 유사 도매행위를 하거나 협정가격 위반 또는 혼육판매 행위 등을 할 때는 최하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부정 육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운행정지처분이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자가 도매시장에 소나 돼지를 팔 경우 도매시장이 전날 최고낙찰가의 70%를 미리 축산업자에게 주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낙찰이 된 뒤 청산토록 했다.

전창수등에 외자도 입인가

외국투자 심의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전창수의 애원동물용 사료제조에 대한 日本PET產業과의 합작투자를 승인했다. 사료 9천톤 규모의 시설을 하기 위해 日本PET產業이 투자할 금액은 10만불이다.



미국 對韓 양곡차관(PL480)재개합의

4월 19일 한미농상 회담에서

지난 4월 19일에 열린 한미농상 회담에서 미공법 480호에 따른 장기저리로 대한양곡차관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정소영 농수산장관과 버츠농무장관의 회담에서는 73년 중반기 이후 중단되고 있는 미공 480법호에 의한 장기저리차관 형식의 대한양곡공여를 확약했으며, 정장관은 한국의 생사, 통조림, 축산물등의 수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장관은 특히 오는 11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식량대회에서 식량부족국의 소요량을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구입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엔기구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주요

양곡 수출그룹의 공동 비축판매제와 수출국 그룹 및 수입국 그룹 간의 장기 수출입 계약체를 채택하고 농산물 교역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우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식량공급 및 농산물교역등에 관한 농산물 교역등에 관한 협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간의 농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73년도 미공법 480호에 대한 협정액은 모두 9천 9백 70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7천 7백만 달러에 대해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현물내용은 현미 14만톤, 소맥 60만톤, 옥수수 2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소맥 18만톤 옥수수 6만 7천톤이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 이미 구입 되었다.

루어졌으나 금년에 이르러 이는 약 50%로 줄었고 74회계년도에는 20%미만이 정부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에 비해 금년의 2억 1천 5백만달러 구매증가액 전액이 민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곡물수요를 충족할 역량과 소망을 갖고 있다. 미국농부들은 소련과 중국의 생산부족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호주의 한발, 대국, 아르헨티나, 남아및 인도 등지에서의 곡물생산감소 폐류에서의 멸치어획부진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쌀 부족등 기타 주요사태발전으로 야기된 세계식량부족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메워 주었다. 미국농민은 74년에 새로운 생산기록을 세울것이다. 금년은 73년보다 4%줄어든 5천 5백만 에이커에 콩을심을 계획인데 작년과 같은 량의 수확을 할 것이다. 또한 금년도의 소맥수확은 작년의 17억 뷔셀보다 많은 21억 뷔셀을 예상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67억 뷔셀의 수확을 할 것이다. 고지대의 면화경작자들은 작년보다 거의 5분1이 많은 면적에 재배할 것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아 아직도 더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보다 새롭고 집약적인 공업기술의 적용으로 에이커당 곡물생산을 늘릴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작면적을 늘리고 에이커당 수확률을 높임으로써 85년까지 90억 뷔셀의 옥수수 수확과 각각 23억 뷔셀의 소맥 및 콩수확을 예측 할수 있다. 사료생산은 73년의 2억 8백만톤에 비해서 85년도에는 3억 톤을 쉽게 거둘수 있을 것이다.

열. L. 버츠 미농무장관 한국방문연설

한국 곡물도입 80년 이전에 10억불 도달 할듯

「다음은 지난달 4월 17일 방한한 미농무장관 열.L.버츠가 지난 4월 19일 서울에 있는 美國商業會議所에서 연설한 要旨인데 미농무장관의 한국방문은 현재 우리업계의 경제동향으로 보아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 다음에 그 연설 요지를 게재한다.」

금년에 아시아가 유럽전체 보다도 큰 미국 농산물시장이 되었으며 동아시아가 서구보다도 큰 미국농산물시장이 되었다. 6월 30일로 끝나는 이번 회계년도에 약 85억 달러의 미국농산물이 아시아에 수출될 것이다. 일본은 4년전에 미농산물 10억 달러 고

객이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현 미국회계년도에 약 34억 달러를 수입할 것이다. 중공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미농산물 시장으로서 73~74회계년도에 약 10억 달러수준을 수입할 것이다. 한국도 이를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대한농산물 수출고는 66년과 73년사이에 8배가 증가 6억 3천 5백만달러로 늘어났다. 회계년도에는 7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고 80년도 이전에 10억 달러선에 도달할 것이다. 66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미농산물 수출의 약 80%는 정부계획하에서 이

미 농민, 비료 석유타격으로 고전

미국사료곡물협회 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밝혀



미국, 옥수수 경작 포기 속출 生産業界, 올해 15% 不足예상

미국의 곡창지대인 중서부지방의 농부들은 지난 중순부터 대두 및 옥수수등의 작물경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료를 얻지못해 심각한 비료난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해 곡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금년에도 무엇이나 심고 시비를 많이 해서 수확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때문에 2개 주요비료의 증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런 상황때문에 비료값은 지난해 10월후 평균 80%라는 상승율을 나타냈고 농부들은 여전히 비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옥수수값마저 떨어져 농부들은 수확하는데 드는 추가 부담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더욱 고민하고 있다. 비료생산업계는 비료부족량이 거의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생산은 에이커당 90 뷔셸미만으로 떨어져 총 10억 뷔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사료곡물 협회 회장단 프레드릭 러드윅 이사장, 엘버트 하프 공동이사장, 다윈 스톤티 회장과 코이 닐리농무성사료전문가들은 지난 4월 3일 한국

방문중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들은 “금년도 옥수수는 10%정도 증가할 것이며 대두는 5%감소 수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배하게 될 것으로 보아 생산량이나 대외공급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석유값이 앙등하고 비료가 2~3배 오른데다가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생산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또한 “한국은 사료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여건에 있을 줄 알지만 소비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아직도 발전할 가능성 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곡물시세는 계속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동무성 상품신용공사(C.C.C) 재고에 대한 가격을 보면 4월 19일 현재 FOB가격으로 옥수수가 톤당 110²⁵불, 수수가 99²⁰불, 소매이 163⁵⁰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 22일의 옥수수 134¹⁵불, 수수 123⁰⁵불, 밀 240⁶⁷불을 정점으로 계속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계속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10월분까지의 사료곡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11월, 12월에 쓸 9만톤과 내년 이월분 10만톤만 더 구매하면 충분하므로 곡물의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4월 17일 방한한 미농무상 버츠의 PL 480에의한 곡물도입은 실시된다. 하더라도 금년 신곡(가을수확)이 거래되는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요인이 작용하여 미





養鷄場 스트레스 피해

668만원 補償

대구 성원농장 吳成澤씨에게

닭의 스트레스 피해로 인한 무형의 피해에 당국이 첫 보상을 했다. 지난 4월 20일 대구시는 겸단공업단지 조성지구에 들어간 대구시 겸단동 539 성원농장 주인 吳成澤씨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과



양계시 설보상금외에, 이전함에 따라 닭이 충격을 받아 산란율이 떨어져 입은 피해 보상비 668만 원을 산출 전액지급했다. 시는 스트레스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항목에 기재 했는데 국가에서 가금류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산출한 근거를 보면 양계장 이전 시 15일동안 산란율이 평소의 70%에서 20%로 떨어졌는데 오씨가 사육하는 3만3천수가 계사를 옮기면서 입은 손해가 450만 원이고 떨어진 산란율을 회복시킨데 산란축진제 투약비 50만 원, 병아리 1만3천5백수가 스트레스로 15일간의 성장중지한것으로 쳐 이 기간의 사료비 1백50만원, 성장축진제 18만원등을 보상받았다.

◆돼지 23마리 出產으로 세계 기록

지난 4월 22일 경북 금릉군 어매면 중왕동 528 김정식씨집 돼지가 23마리의 돼지 새끼를 낳아 세계기록을 올렸다. 이중 6마리는 2시간후에 죽고 17마리(우9, 솔8)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돼지는 작년 12월 28일 금泉협동조합에서 인공수정한 것이다.

미사료곡물협회 양돈 강습회 개최 예정

미국의 양돈전문가 베노·펜스씨를 초청 한국의 양돈업계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미곡물협회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성환 소재 연암축산기술학교를 방문 연암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가졌다. 한편 곡물협회는 대전(5월31일) 서울(6월 3일), 부산(6월 14일) 전주(6월 21일) 등지에서도 강습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수 3만톤 구매

柳회장 방미시 AID차관 자금으로 사료협회 유윤수 회장은 지난 4월 8일 미국을 방문하고 AID 차관 자금에 의한 곡물구매전으로 수수 30,000톤을 구매하고 지난 20일 귀국하였다.

신종 비육우 샤로레 잡종 개발

축산시험장의 설동섭박사 연구팀이 新種 肥肉牛 샤로레 雜種開發에 개발을 올렸다. 설박사팀은 지난 64년부터 앞으로 증가될 쇠고기의 자급률을 위해 새로운 품종의 비육우 개발에 착수해오다 70년 4월 프랑스에서 샤로레 냉동

정액을 들여와 한우 130마리에 인공수정 여기서 생산된 샤로레 1대 잡종을 지난 18개월간 사육한 결과 한우보다 216kg이나 더 무거운 636kg으로 51.5%나 그 무게가 더나가 고기의 生產量도 한우보다 59.5%나 더 많은 327kg이나 되는데 두당 전체소득은 한우보다 3배나 많은 109,070원이었다. 따라서 농가에는 3배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겠다. 또 샤로레 1대 잡종은 추위와 더위에 강하며 식육이 왕성하여 어떤 사료든지 잘 먹고 성질이 온순하여 농가에서의 사육관리가 한우보다 훨씬 용이하다. 金寅煥 농촌진흥청장 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양축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한우 10,000두에 인공수정 시켜 점차 그 수를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축산학회 학술발표회

4월 27일 대구 영남대서

한국축산학회(회장: 오봉국)는 지난 4월 27일 대구 영남대학교 농축대학에서 74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계분 발효처리로 악취제거 良質의 퇴비생산

양계동가에서 매일 다양으로 배출되는 계분은 앞으로 畜産公害상 매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양계가들은 계분의 처리 방법으로 천일건조(天日乾燥), 풍건(風乾), 기계건조, 소각등 여러방법을 쓰고 있으나 완전 탈취(脫臭)가 어려울 뿐 아니라 연기와 악취(惡臭)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근 日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일소할 수 있는 나가모도식 畜産糞尿 완전발효처리법을 特許開發하여 公害問題를 완전해결 할수 있게 되었다한다. 이제 그 처리방법을 다음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生糞을 교반(攪拌), 반송(搬送)스크류로 같은 양(量)의 톱밥과 함께 濕度가 60%가 되도록 조절하면서 1차 발효조에 쌓아놓고(발효조: 전축용 목재로 파네루조립식으로 만든 1평방 사

방의 대형조) 여기에 특수 발효균을 가하여 속성시키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다. 발효가 시작하면 약 이틀후부터 50~80°C의 발효열이 발생되어 악취도 제거될 뿐 아니라 파리나 별레가 발생할 염려도 없으며 20일마다 한번씩 뒤집어 제 2조 탱크에 넣으면 약 60일이면 습도 40%의 완숙한 퇴비가 되어 公害基準에 맞게 처리가되고 양질의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퇴비는 습도가 40%이고 짚이나 톱밥등이 혼합되어서 부식토(腐食土)가 된 것이 가장 좋고 견조하지 않는 것이다. 돈분(豚糞)이나 우분(牛糞)은 조사료(粗飼料)로 쓰나 계분(鶏糞)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곡물을 먹이기 때문에 퇴비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될수 있다고 한다.

· 원서접수마감
: 74년 6월 7일
까지.

· 필답 및 면접
시험: 6월 10일
오전 9시

□ 특전

- 재학중 학자금 전액면제 및 각종교재, 실습비 일체 본학원부담.

- 재학중 축식비 일체 본학원부담

- 수료후 연수실기를 더 닦기 위한 국내외의 축산연구기관에 취업을 우선 추천함.

학원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미평리 114번지 용인 제 1농장파이천종돈농장이며 입학을 위한 자세한 안내는 제일축산협동사료공업사(우편번호 133~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동 465~1, 전화 55-1381~2)로.

축산전문 기술학원생 제1기 모집 제일 축산 협동 사료에서

제일축산협동사료(대표: 윤도진)는 정부의 축산진흥책과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할 젊은이들에게 축산전문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하여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

□ 모집학과 및 연수내용

학과: 양돈과, 양계과 각 10명
연수기간: 6개월

연수내용: 오전은 정신교육,

오후에는 실기

□ 응모자격

군복무를 마친 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거주지의 교회목사나 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발부)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자필이력서 1통

- 학부형 또는 후견인의 취학증명서

- 명함판 사진 2매

□ 선발요령

제일종축농장(대표: 윤도진)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성회관 강당에서 양돈의 국제정세, 사양관리, 전망, 질병방역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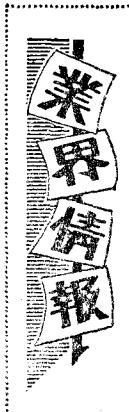
장용식(축산경영 대표)

장병직(가축위생연구소 병독담당관실)

윤도진(제일종축 대표)

이규운(제일종축 제 1 농장장)





한국화이자 고객 6명 일본시찰

한국 화이자는 베카독스의 주요고객 6명을 선정 오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사료업체를 시찰하고 베카독스 세미나에 참석시킬 예정이다. 일본시찰팀 6명은 다음과 같다.

김수업(한국축산 상무), 최병덕(한일사료 전무)

페리포거티(Ferry Forgaty 이시풀 목장)

최창해 교수, 유원석, 하낙순(퓨리나코리아)

녹십자 신제품 발매

녹십자주의약품(주)(대표: 마웅호)은 새로 지석호씨(대전농전 출)씨를 특채하였다. 녹십자는 또한 지난달 새로발매했던 비타 롱파 로코비t-SW에 이어 신제품으로 뉴캣슬사독백신 500수용과 일본뇌염백신(50cc)을 새로 발매하고 있는데 일본뇌염백신은 용법이 새로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용법〉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1ml씩 1주간격으로 2회 주사하거나 또는 3~5ml씩 1회 피하주사한다.

또 일본뇌염바이러스에 의한 폐지의 유사산(流死產)예방에는 5~10ml씩 3회(2회는 1회 주사 1주일후, 3회는 2회주사 4주일후)피하주사 하거나 또는 10ml씩 4주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한다.

연락처: 서울중구 주자동 41의 3
27-7186~8

영등포 축산상사 개업

인천, 안양, 영등포등 한수이 남의 양축가들에게 친절한 기술지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약

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등포 축산상사가 문을 열었다. 영등포축산상사는 각종 가축 약품을 위시하여 농약, 축산기구, 각종 건축자재, 묘목등도 아울러 취급할것이라 하는데 대표는 이찬우씨, 자문역할에 이철용, 김종철씨이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53(엄지다방 2층)
전화 62-2710

양지가축병원 개업

양지가축병원이 개설되었다. 지난 4월 12일 개업한 양지가축병원은 양지농장부화장 대표 김인영씨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양축가에 어려움 덜어주는 데 노력하리라 한다. 또한 양지가축병원은 가축약품일체를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가에게 판매하며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응하며 현지출장하여 진료도 할 것이다.

대한신약 마렉백신 수입

대한신약(대표: 김홍기)은 동결전조마렉백신 노빌리스와 함께 미국 바인랜드제품인 냉동마렉백신바이마크를 수입판매하고 있다.

바브콕 월례회

한국바브콕협력회(회장: 윤경

중)는 지난 4월 18일 충남 유성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바브콕 농장 임시 주주총회도 아울러 가진바있다. 이자리에서는 일부이사의 개선과 감사개선이 있었다.

가축인공수정소 가축 개량사업소로 명칭 변경

농협중앙회 직제규정 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가축개량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이사 직속하에 독립사업소로 개편하고 세계은행의 차관을 도입 사업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대 축산과 동문 회 개최

5월 5일 수원농대서

서울대농대 동문회(회장: 육종용)는 5월 5일(일) 오전 10시 수원농대 교육관 앞에서 축산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오전 중에 농대 목장과 실험실 등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친선배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동부화장 세이버협회 탈퇴

한국세이버협회(협회장: 이필용)회원인 협동부화장은 세이버협회에서 탈퇴 세이버협회 회원은 총 11개 회원으로 되었다.

■ 업계인사이동 ■

- 김정남: 전대유가공 공장 공장장으로
- 차경선: 전대 유가공 공장장으로
- 정진국: 퓨리나코리아 구매부장으로
 - 전웅희: 이글케미킬링업부로
 - 김현조: 이글경남북출장소장
 - 김희룡: 중앙축산 영업부로
 - 육명달: 봉명부화장으로
 - 황기현: 한일농원으로
 - 자석호: 녹십자 영업부로